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그리스 이 모습이 진짜?

북한전서 드러난 수비불안 그대로… 파라과이 평가전 0대2 완패

남아공 월드컵 D-7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오는 12일 어떤 모습일지가 중요하다"며 표정관리를 했지만 아마 속으로는 환한 웃음을 지었을 법하다.

한국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첫 경기 상대인 그리스의 무기력한 모습을 두 번이나 직접 지켜봤으니 말이다. 한국과 오는 12일(이하 한국시각) 남아공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맞붙을 그리스가 3일 오전 스위스 빈터투어 쉬첸비세 경기장에서 열린 파라과이와 평가전에서 0-2로 완패했다.

허정무 감독은 북한과 친선경기에 이어 이날도 직접 경기장을 찾아 그리스의 전력 탐색에 나섰다.

그리스는 북한과 평가전처럼 포백을 바탕으로 한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다.

최전방에는 판텔리스 카페타노스, 좌·우에 게오르기오스 사마라스와 디미트리오스 살핀기디스를 배치해 공격진을 꾸렸다. 그리스의 새별 소티리스 니니스가 공격형 미드필더 겸 처진 스트라이커로 나섰고, 알렉산드로스 치올리스와 콘스탄티노스 카추라니스가 중앙 미드필더 나섰다.

포백수비는 왼쪽부터 바실레이오스 토로시디스·아브함 파파도풀로스·소티리오스 키르기아코스·게오르기오스 세이타리디스로 꾸렸고, 골문은 주전인 알렉산드로스 초르바스가 지켰다.

월드컵 예선에서 10골을 넣은 주전 공격수 게카스는 이틀 전 팀 훈련 중 무릎에 가벼운 부상을 당해 이날 파라과이 경기에는 나서지 않았지만, 한국과 본선 1차전에서는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

북한전에서 오른쪽 풀백을 맡아 전반 45분을 뛰었던 빈트라는 파라과이전에서는 후반 교체 투입돼 중앙수비수로 45분을 뛰었다. 2004년 유럽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질식수비'로 이름을 날렸던 그리스이지만 최근 보여준 포백 수비의 조직력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북한과 경기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파라과이 앞에서도 그대로 반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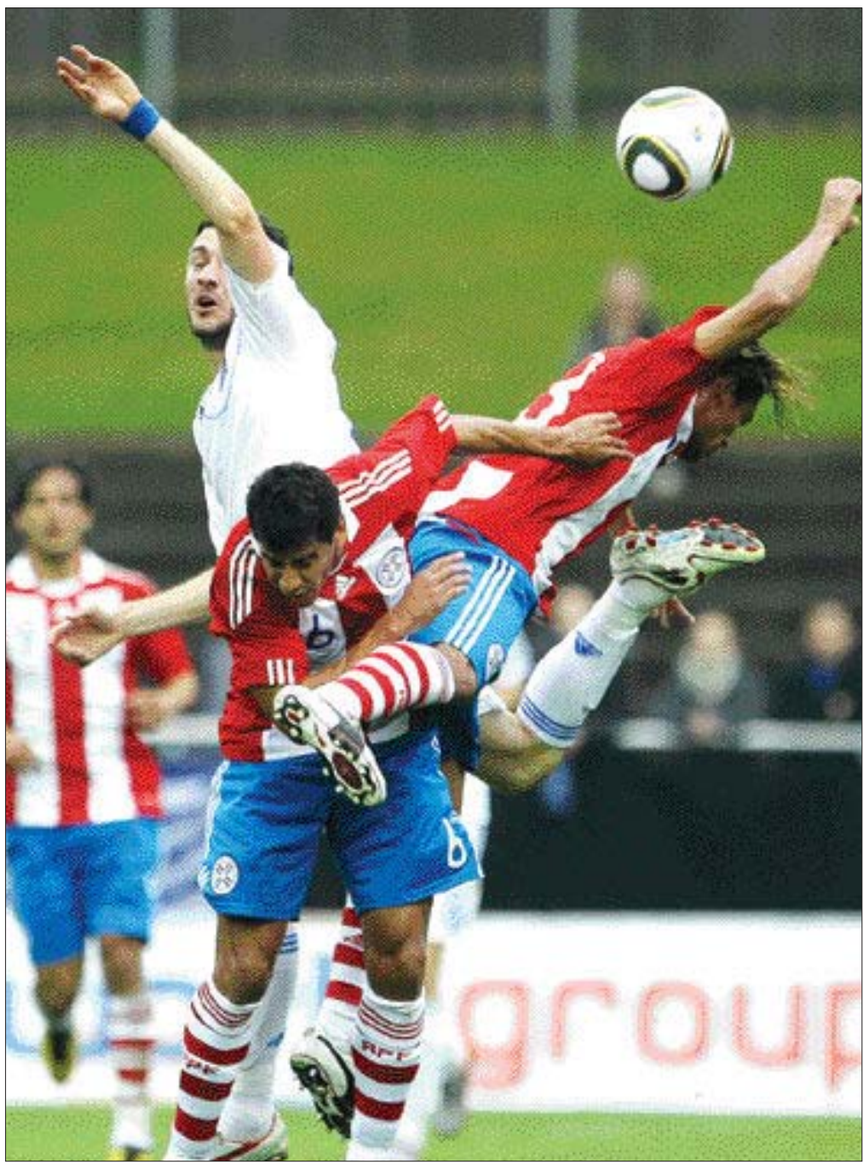
그리스 수비진은 파라과이와 빠른 공격 전개와 짧은 패스 연결에 크게 흔들렸다.

그리스는 공격에서도 전혀 위협적이지 못했다.

북한과 경기에서는 프리킥과 코너킥을 전담하는 카라구니스의 발끝에서 시작된 볼 배급과 세트피스가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카라구니스 대신 선발로 나선 니니스는 최전방과 중원을 누비면서 많이 움직이긴 했어도 카라구니스와 같은 역할은 해 주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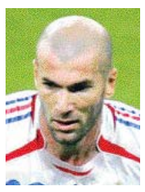
그리스는 미드필드를 장악하지 못하다 보니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불필요한 횡패스와 백패스로 흐름을 스스로 끊었다. 윙포워드 사마라스와 살핀기디스도 장기인 드리블과 스피드를 살리지 못하면서 두 경기 내내 날카로움을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후반 들어서며 니니스 대신 카라구니스가 나왔지만, 전반 가라앉았던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연합뉴스



3일(한국시각) 오전 스위스 빈터투어 쉬첸비세경기장에서 열린 그리스와 파라과이의 평가전에서 그리스 바실레이오스 토로시디스가 파라과이 선수들과 볼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아트사커 사령관 지단 월드컵 우승 후보 스페인 꼽아



왕년 프랑스 '아트사커 사령관'이었던 지네딘 지단(프랑스)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우승 후보로 스페인을 꼽았다.

지단은 "스페인이 가장 강한 팀이라고 생각한다"며 "스페인의 경기 스타일이 좋은 성적을 내는데도 적합하다"고 말했다고 축구전문 인터넷 사이트 골닷컴이 3일(한국시각) 보도했다.

지단은 또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이탈리아와 결승 경기에서 마르코 마테라치(이탈리아)를 머리로 들이받아 퇴장당했던 것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지단은 "사건 이후 6개월 동안 내 기분이 어떠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일을 얘기해 가슴 아프다. 다시 한 번 그 순간을 산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연합뉴스

日, 코트디부아르와 135분 평가전

일본 축구 대표팀이 코트디부아르와 135분 동안 이어지는 이색 평가전을 치르기로 했다.

오카다 다케시 일본 대표팀 감독은 3일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경기가 끝나고 45분을 더하자고 제안했고 코트디부아르 측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 선수들까지 모두 기용해 전술 변형과 개인 기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안으로 135분 평가전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코트디부아르의 친선경기는 5일 스위스의 스타드 투빌론에서 열린다. 일본은 세르비아에 0-3, 한국에 0-2, 잉글랜드에 1-2로 패하는 등 최근 평가전에서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연합뉴스